



보르도 황의조(왼쪽)가 11일(한국시간) 스타드 조프루아-기샤트에서 벌어진 2020~2021시즌 프랑스 리그앙 32라운드 생테티엔과 원정경기 도중 상대 수비를 뚫고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출처 | 보르도 트위터

황의조 11호골...4경기 연속골

생테티엔전 PK 골 성공...팀은 역전패 한국선수 리그앙 단일시즌 최다기록 '-1'

황의조(29·보르도)가 4경기 연속골 행진을 펼쳤다. 황의조는 11일(한국시간) 스타드 조프루아-기샤트에서 열린 2020~2021시즌 프랑스 리그앙(1부) 32라운드 생테티엔과 원정경기에서 선발출전해 전반 8분 페널티킥(PK)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올 시즌 그의 11호 골이다. 보르도는 전반 5분 만에 메흐디 제르칸이 페널티에 어리어 안에서 상대에게 반칙을 당해 PK 기회를 얻었다. 키커로 나선 황의조는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올렸다. 황의조의 최근 4경기 연속골이었다. 그러나 보르도는 수비붕괴로 1-4 역전패를 당했다. 최근 3연패의 부진 속에 10승6무16패, 승점 36을 기록한 보르도는 20개 팀 중 15위에 랭크됐다.

팀은 패했지만, 최근 가파른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황의조의 활약상은 눈여겨볼 만하다. 측면 공격수로 나선 시즌 초반에는 좀처럼 득점포가 터지지 않아 마음고생이 컸던 그는 2021년 들어 본인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배치되면서 진가를 뽐내고 있다. 올 시즌 11골 중 무려 9골이 해가 바뀐 뒤 나왔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최고의 공격 옵션으로 떠오르면서 코칭스태프, 동료들의 신뢰 또한 높다. 4월 스트라스부르와 홈경기(2-3 패)부터 PK 키커로 나서기 시작해 2경기 연속 PK 득점 찬스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다. 동료들의 신뢰에 보답한 것이다.

리그앙 진출 2시즌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신고한 황의조는 이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 기회를 잡았다. 바로 한국선수의 리그앙 단일시즌 최다 득점 기록이다. 리그앙에 진출한 한국선수들 중 한 시즌 최다 골은 2010~2011시즌 AS모나코 소속이던 박주영(현 FC서울)이 작성한 12골이다. 황의조는 1골만 보태면 박주영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황의조는 19일 AS모나코와 홈경기에서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정치국 기자 stop@donga.com

기성용, 3월의 선수상...리그 첫 이달의 선수상



기성용

K리그1(1부) FC서울의 주장 기성용이 K리그 3월의 선수상 수상자가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기성용이 3월 EA스포츠가 후원하는 EA 이달의 선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성용의 K리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서울 소속 선수로도 최초다. 이달의 선수상은 한 달간 K리그1 경기에서 베스트11, MOM(Man Of the Match), MVP(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맹 경기평가위원회의 투표(60%)를 통해 후보군을 선정한 뒤 팬 투표(25%)와 EA 온라인 유저 투표(15%)를 통해 결정된다. 기성용은 2월 말 개막 라운드부터 3월까지 치른 6경기에서 3골·1도움을 올렸다. 3경기 연속골로 서울의 3연승을 이끌기도 했다. 김보경(전북 현대), 세지아(대구FC), 조현우(울산 현대)와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해 3월의 선수로 선정된 기성용에게는 EA코리아가 제작한 트로피가 주어진다. 아울러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달의 선수(Player Of The Month)' 패치를 유니폼에 부착한다. 개막 9경기 무패(7승2무)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전북 김상식 감독은 3월의 감독상을 받았다. 전북은 개막 라운드부터 3월까지 6경기에서 4승2무를 기록했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인천전서 두가지 테스트를 마친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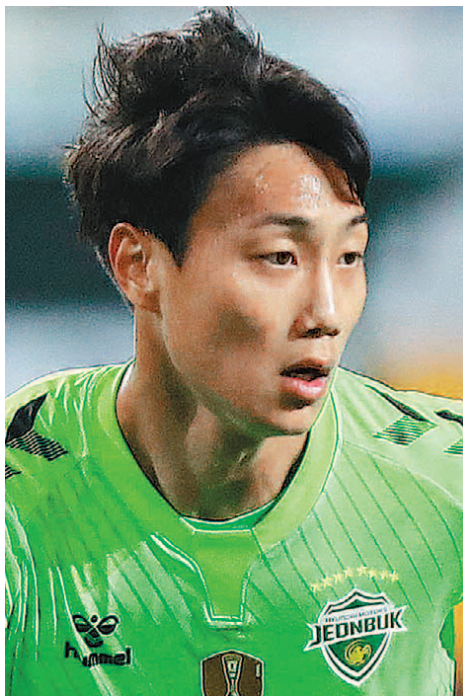
백승호·쿠니모토에 거는 '5연패 플랜'

백승호 실수 있었지만 무난한 데뷔 쿠니모토 특유의 날카로운 킥 여전 컨디션 100% 올라올 땐 폭발력 기대 기존 자원으로 탄탄...전북 완전체 눈앞



K리그1(1부) 전북 현대의 상승세가 매섭다. K리그 통산 9회 우승 및 5연패를 노리는 전북은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 2021' 9라운드 홈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뒀다. 개막 9경기 무패(7승2무), 승점 23으로 선두를 질주했다.

2골·1도움을 올리며 개인통산 50골·53도움을 기록한 이승기, 역시 멀티골에 성공한 한교원, 도움 2개를 배달한 김보경의 활약이 눈부셨지만 화제의 중심은 '다용도 미드필더' 백승호(24)였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 유스에서 성장한 백승호는 유학 지원을 이유로 '우선연입권'을 주장했을 뿐 이적작업에는 나서지 않은 수월 삼성이 아닌 전북에 입단해 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인공이다. "컨디션은 90~95%, 전투력은 200%"라며 그의 출전을 예고했던 김상식 전북 감독은 후반 24분 백승호를 투입했다.



K리그1 전북이 '완전체' 전환을 앞두고 있다. 전북은 5-0 대승한 11일 인천과의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신입생' 백승호(왼쪽)와 부상을 털고 돌아온 쿠니모토를 투입해 경기력을 점검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둘의 합류는 또 한 번 정상을 향한 전북에게 긍정적인 예니지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사진제공 | 전북 현대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았다. 중앙 미드필더로 수비진 보호와 공격 시발점의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다소 긴장한 듯 실수가 나왔다. 움직임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K리그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이미 국가대표로 A매치를



K리그1 전북이 '완전체' 전환을 앞두고 있다. 전북은 5-0 대승한 11일 인천과의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신입생' 백승호(왼쪽)와 부상을 털고 돌아온 쿠니모토를 투입해 경기력을 점검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둘의 합류는 또 한 번 정상을 향한 전북에게 긍정적인 예니지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사진제공 | 전북 현대

소화한 만큼 기량은 검증됐다. 리그의 템포에 익숙해지고 팀의 리듬에 녹아들면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워질 수 있다. 특히 원포워드와 2선 공격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다. 김 감독은 개인면담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한 백승호의 데뷔전 포지션을 중

양 미드필더로 정했으나 고정 포지션은 아니다.

이날 전북 벤치는 또 다른 테스트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FA컵 결승전 도중 큰 부상을 입고 전열을 이탈했다가 회복한 '아시아 쿼터' 쿠니모토(24)를 백승호와 함께 교체 투입했다. 쿠니모토는 공격진에 근접해 화려 지원을 담당했는데, 퍼포먼스는 인상적이었다. 특유의 볼 배급과 날카로운 킥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2선 공격수와 중원에 어울리지만 팀 사정에 따라 측면 날개로도 뛸 수 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백승호와 쿠니모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예열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강팀의 진짜 힘은 탄탄한 선수층에 있다. 긴 시즌을 치르는 동안 부상, 퇴장 등 변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세 모라이스 전 감독(포르투갈)이 이끈 지난 2년간 전북은 두껍지 않은 스쿼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올 시즌의 전북은 다르다. 인천전에서 폭발한 이승기, 한교원, 김보경 등 기존 자원들에 더해 백승호와 쿠니모토가 최적의 페이스를 찾으면 한층 더 무서워질 수 있다. 여기에 군 전역을 앞둔 문선민(김천 상무)도 있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 무서운 전북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3경기 연속골' 주민규 제주의 고민 짝 지었다

안정적 수비 불구 공격수 득점 부족 남기일 감독 "굉장한 상승세" 극찬



주민규

K리그1(1부) 제주 유나이티드는 2021시즌 9경기에서 2승6무1패, 승점 12로 7위에 올라 있다. K리그2(2부)에서 올라온 승격팀임을 고려하면 올 시즌 초반 결과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남기일 감독(47)이 추구하는 강한 압박과 탄탄한 수비라인을 앞세워 상대 공격을 무력화 시켰다. 9경기에서 실점은 7골뿐이다. 성남FC(4실점)에 이어 2번째로 적은 실점이다. 다만 안정적 수비에 비해 공격에선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득점의 불교가 좀처럼 트이지 않아 무승부가 유독 많았다. 특히 득점 대부분이 수비수에게서 나왔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러나 제주는 경기를 거듭하면서 공격수 득점 부족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민규(31)가 있다. 주민규는 최근 3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다. 4일 수원FC와 7라운드 원정경기(1-2 패) 마수결이 골을 시작으로 7일 강원FC와 8라운드 원정경기(1-1 무)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했다. 11일 수원 삼성과 9라운드 홈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44분 김영욱의 크로스를 헤딩 결승골로 연결하며 팀에 2-1 승리를 안겼다.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주민규의 활약 덕분에 제주는 5경기 무승(4무1패)의 사슬을 끊고 귀한 승점 3을 보냈다. 이날 승리는 또 남기일 감독의 K리그 감독 통산 100승이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컸다.

남 감독은 수원전 직후 "굉장한 상승세다. 대단한 활약을 했다.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음을 증명했다. 팀을 위해 싸워주고 있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주민규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았다. 상승세를 탄 제주와 주민규는 17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10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팀은 연승, 주민규는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정치국 기자 stop@donga.com



중국과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 2차전 원정경기를 하루 앞둔 12일 여자축구대표선수들이 수저우 타이후 축구트레이닝센터에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여자축구, 오늘 중국과 2차전...간절함으로 싸운다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본선행 여민지 등 월드컵 영웅들 총 출동 올림픽 마지막 찬스...후환 각오

한국축구에 새 역사를 새겨질 아침이 밝았다. 콜린 벨 감독(잉글랜드)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이 13일 오후 5시(한국시간) 중국 수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 2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PO 1차전 홈경기에서 1-2로 졌다. 반드시 2골 이상 넣고 이겨야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룰 수 있다. 불리한 여건이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여자축구는 우리의 천적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로, 한국(18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역대 전적에선 비교가 되지 않는다. 4승6무28패의 한국의 절

대 열세다. 여자축구 한·중전에서 승리한 기록은 2015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당시의 1-0 승리가 마지막이다. 그 후 1무 5패로 크게 밀렸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한국여자축구에 올림픽은 '미지의 영역'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 3차례(2003년 미국·2015년 캐나다·2019년 프랑스)나 출전했음에도 올림픽과는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았다. 최근 4개 대회 본선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 2008년 중국 베이징, 2012년 영국 런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까지 모두 출전권을 놓쳤다.

도쿄올림픽은 절호의 기회다. 여자축구 전통의 강호인 일본이 개최국 자격으로 예선에서 빠짐에 따라 한결 수월해졌다. 그러나 중국의 벽에 다시 한번 가로막힐 위기다. 도쿄올림픽이 간절하고 절실한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한국여자축구의 르네상스를 일군 주역들이 함께할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이란 점에서다. 이번 대표팀에는 2010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개최된 FIFA 17세 이하(U-17) 여자월드컵 우승 주역인 장슬기(현대제철), 여민지(수력원자력), 이금민(브라이언트&호브 앨비언) 등과 그해 독일에서 열린 U-20 여자월드컵 3위 멤버 지소연(헬시 워터), 이민아, 이영주(이상 현대제철) 등이 포함돼 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이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3년 뒤 파리올림픽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벨 감독은 결전 하루 전(12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두려움은 없다. 기대가 크다. 선수단에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중국 땅에서, 중국 팬들이 보는 가운데 승리해 올림픽 티켓을 가져가고 싶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